

“광주에서 ‘V11’ 헝가레 하겠다”



한국시리즈 1차전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KIA 타이거즈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야간 훈련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국시리즈 미디어데이

한국시리즈 첫 맞대결답게 ‘기싸움’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2017 타이어뱅크 KBO 포스트 시즌 한국시리즈 미디어데이 행사가 24일 전남대학교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한국시리즈 ‘불패 신화’에 도전하는 KIA 타이거즈에서는 김기태 감독과 선수 대표로 양현종·김선빈이 참가했다. ‘3연패’를 노리는 두산 베어스에서는 김태형 감독과 유희관, 오재일이 자리했다.

프로야구 원년부터 정상에 도전해온 두 팀이지만 한국시리즈에서 격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즌 최종전까지 치열한 1위 싸움을 전개했던 두 팀은 ‘정규시즌 챔피언’과 ‘디펜딩 챔피언’으로 미디어데이에 참가해 한국시리즈 전초전을 치렀다.

“3연패를 꼭 하도록 팬들에게 약속하겠다”는 두산 김태형 감독의 말에 KIA 김기태 감독은 “3연패 하시겠다는 데 너무 한 팀이 앞서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막아보겠다”고 응수하며 미디어데이에 분위기를 띄웠다.

팀을 대표하는 두 투수의 힘겨루기도 예

KIA-두산 한국시리즈 첫 격돌…전초전부터 기싸움

김기태 감독 “독주는 안되니까 두산 3연패 막겠다”

사롭지 않았다.

KIA 양현종은 “8년 만에 한국시리즈를 하게 됐는데 반드시 광주에서 헝가레를 하도록 하겠다”며 우승을 예고했고, 이에 맞서 두산 유희관은 “내년에는 정규시즌 우승해서 잠실에서 미디어 데이를 하겠다. 단군 매지라고 많이 하시는데 곰이 호랑이를 이기는 것 아닌가. 인내와 끈기로 호랑이를 잡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두 투수의 기싸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두산은 여유가 많겠지만 우리가 간절함이 더 많다. 꼭 이겨서 30년 만에 광주에서 우승 헝가레를 치겠다”는 김선빈의 말에 유희관은 “(광주에서 KIA의 우승 헝가레가) 30년이 아니라 31년이 걸릴 것 같다. (우리가 우승하면) 기억에 남을 만한 세리모니를 해야 할 것 같다. 마운드에서 쏘거나 마늘을 먹어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두 선수는 ‘팬들의 응원 열기’를 놓고 3

라운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LG 트윈스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앞두고 “잠실 전광판 빼고 (경기장 분위기가) 우리 것이나 다름없다”며 KIA 팬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에 관해 이야기했던 양현종은 이번에도 “우리는 홈 7연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돌직구를 던졌다.

“우리가 잠실에서 1루 덕아웃을 쓰니까 홈경기 맞다”며 웃음을 보인 유희관은 “우리 팬들의 열기도 상당하다. KIA가 인기 있는 팀이니까 명승부가 될 것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첫 한국시리즈를 앞둔 김선빈도 “몸 상태는 100%다. 시즌 때 100%보다 더 좋은 100%로 최고의 활약을 하겠다. 플레이오프 자체를 재미있게 봤다. 올라 오는 (두산) 투수들 다 이겨보고 싶다”고 기싸움에 힘을 보탤었다.

평소 공식 석상에서 말을 아끼는 김기태 감독 역시 한국시리즈를 앞둔 모습은 달랐다. 김기태 감독은 경계 대상으로 플레이오

프 4차전에서 4홈런을 터트린 오재일을 꼽으면서도 “오재일 선수 이번에 참 대단한 활약을 했다. 그래도 좋았던 타격감이 (경기가 없던) 3월간 좀 식었지 않았을까”라고 언급했다.

또 올 시즌 7승 1무 8패로 유일하게 두산에 열세를 기록했지만 “1무를 반올림해서 위안 삼겠다”고 말한 김기태 감독은 상대 불펜 핵심인 함덕주의 대비책에 대해 “(리드를 잡아) 경기에 안 나오게 하는 게 함덕주 대비책이다”라고 답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미디어데이를 통해 기싸움을 한 두 팀은 25일 오후 6시 30분 챔피언스필드에서 한국시리즈 1차전을 갖고 ‘진짜 대결’을 시작한다.

◇한국시리즈 엔트리 30명

▲투수(12명)=심동섭 임창웅 김윤동 고효준 임기영 헛터 패트 박진태 홍건희 김세현 양현종 임기준 ▲포수(3명)=김민식 한승택 이정훈 ▲내야수(8명)=김선빈 서동욱 최원준 안지홍 김주찬 이범호 김주형 고장혁 ▲외야수(7명)=신종길 유재신 이명기 나지완 최형우 버나디나 김호령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봉연

김정수

장채근

“평정심·자신감으로 불패 신화 이어달라”

1983년 첫 우승 주역 김봉연 “최형우가 해줘야”

신인 첫 KS MVP 김정수 “마음 모으면 된다”

‘8개의 우승반지’ 장채근 “김민식 큰 역할 기대”

타이거즈 전설들의 조언

프로야구 출범 두 번째 해였던 1983년 타이거즈의 전설이 시작됐다.

이 해 처음 한국시리즈 우승을 일군 ‘호랑이 군단’은 지난 2009년까지 10번의 한국시리즈를 모두 우승으로 장식했다. 타이거즈의 옛 선배들은 ‘평정심’과 ‘자신감’으로 후배들이 한국시리즈 ‘불패 신화’를 이어주길 바라고 있다.

첫 우승의 주역으로 1983년 한국시리즈 MVP를 거머쥔 ‘홀런왕’ 김봉연 극동대 교수는 “정규시즌을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83년 한국시리즈 올라갔을 때 조금 긴장은 했다. 당시 주장이었는데 너무 긴장하지 말고, 우리 각자의 몫을 하자고 이야기했다. 4승 1무로 우승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길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돌아본 김 교수는 “8년 만에 올라가는 한국시리즈라서 첫 경기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된다.

꼭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정규시즌을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단체운동이 분위기가 중요하다. 최형우가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한다. 정규시즌 우승에 최형우의 덕을 많이 봤다. 누군가 앞서서 나서면 뒤따라가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 그런 분위기라면 우승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86년 한국시리즈에서 3승을 싸늘이

하며 신인 최조로 MVP에 등극한 ‘가을 까치’ 김정수 KIA 3군 코치도 ‘할 수 있다’는 선수단의 마음을 강조했다.

김 코치는 “일단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열심히 하면 운도 따라온다. 우승했을 당시 선수단 전체가 내가 하겠다는 마음이였다. 우리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누가 해주겠지 아니라 기회가 오면 잡아야 한다는 생각들이었다. 내가 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단기전에서는 예상치 못한 선수들의 활약이 나온다”며 “우승을 할지 아닐지는 다음 문제고, 내가 하겠다는 마음이 모이면 우승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고 밝혔다.

1986년 한국시리즈 MVP이자 타이거즈의 선수와 코치로 8개의 우승 반지를 수집한 장채근 흥원대 감독은 ‘부담감과 싸움’이라고 분석했다.

장 감독은 “정규시즌 1위를 한 팀이다. 불안감만 떨치면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쉽게 우승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1위라는 생각으로 해야 한다. 두산이 경험이 많은 팀이지만 압박을 줘야 한다. 반대로 KIA가 압박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만 극복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민식이 다른 팀에서 와서 잘해줬다. 두려움도 있을 것인데 중심을 잘 잡아준다면 김민식이 이번 한국시리즈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방마님 김민식의 활약을 예상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선빈 “티켓 예매하다 혈압 올라 죽는 줄”

김기태 감독 “1차전 선발 키순으로 정했다”

미디어데이 말·말·말

▲김치국부터 마시면 안 되죠 = 우승 세리모니를 준비했느냐는 질문을 받은 양현종. “진지하게 한국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양현종은 “우승 세리모니는 모르겠지만 광주에서 우승 헝가레를 치는 게 30년 만이라고 알고 있다. 광주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혈압 올라서 죽는 줄 알았어요 = 한국시리즈 티켓 구하기 전쟁은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김선빈은 “친척 동생이 티켓을 구한다고 해서 같이 PC방에 가서 예매를 하려고 했는데 혈압 올라 죽는 줄 알았다. 티켓을 구하지 못했다”고 웃었다.

양현종도 “아 티켓”이라며 한숨을 쉬 뒤 “심할 정도로 많은 연라이 왔다. 한국시리즈 열기가 대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헛터입니다 = 한국시리즈 1차전 선발이 누구냐는 질문이 나오자 두산 김태형 감독이 마이크를 잡고 “헛터입니다”라고 언급해 행사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저희가요?”라면서 웃음을 보인 김기태 감독은 “옆에 현종 선수가 있는데. 에이스 들끼리 키순으로 정했다. 헛터가 나온다”고 답해 다시 한번 사람들을 웃게 했다.

▲잘 생기셨잖아요 = 한국시리즈 전

초전답게 김기태 감독과 김태형 감독은 선 발언으로 기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두 감독은 친분이 두터운 사이다. 서로의 장점을 이야기해달라는 말에 김기태 감독은 “우승을 많이 해보신 본인데. 잘생기고 실력도 있으시고 모든 게 부럽다. 영광이다”고 말했다. 김태형 감독은 “올림픽 예선 때 날 새면서 같이 술 한잔하던 사이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친형 같은 부분이. 선수들에게 좋은 부분으로 다가가는 것 같다. 부럽다”고 말했다.

▲우주의 기운이 있다 = 상대보다 강한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에 양현종은 “두산보다 강한 게 하나 있는데. 우주의 기운이 있다. 감독님께서 얼굴이 빨개지실 정도로 우주의 기운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다. 그걸 선수들에게 나눠준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래 봤자 날짜는 똑같은데 = 헛터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시리즈를 준비했다는 양현종은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헛터도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며 웃음을 터트렸다. 이어 양현종은 “헛터가 플레이오프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더라. 그래 봤자 한국시리즈 일정은 똑같은데”라면서 웃음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여울기자 wool@

양현종 “진지하게” 김선빈 “재밋게”

“진지하게 하겠다”는 양현종과 “재미있게 하겠다”는 김선빈의 다른 모습, 같은 목표다.

투수 양현종과 내야수 김선빈은 KIA 타이거즈의 대표 선수로 24일 한국시리즈 미디어

데이 행사장을 찾았다. 공수에서 팀의 정규시즌 1위를 합작한 두 사람이지만 한국시리즈에 임하는 마음은 다르다.

2009년 이후 두 번째 한국시리즈를 앞둔 양현종은 “선수들도 잘 못쳐서 진지하게 준비했다. 오히려 코치님들이 여유가 있다 (웃음)”며 “진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진지함”을 이야기한 양현종과 달리 생애 첫 한국시리즈를 기다리는 김선빈은 ‘가을 잔치’를 즐길 생각이다.

김선빈은 “처음 맞는 한국시리즈다. 처음인 선수가 많은데 부담감 떨치고 재미있게 하겠다”고 밝은 표정을 지었다.

큰 무대에 오를 준비는 끝났다. 양현종은 하던 대로 공격적으로 싸울 생각이다. 양현종은 “설레고 긴장도 된다. 2009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용지관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미디어데이에서 KIA 양현종(왼쪽)과 김선빈이 웃으며 이야기 나누고 있다./김진수 기자 jeans@

에는 어린 나이에 미트가 보고 던졌는데 지금은 내가 준비를 하고 조절을 했다. 부담감도 있지만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전력으로 공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던지겠다”고 말했다.

플레이오프를 재미있게 지켜봤다는 김선빈은 ‘선 수비 후 타격’을 목표로 밝혔다. 준플레이오프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경험한 김선빈의 포스트시즌 성적은 20타수 무안타. 올 시즌 타격왕을 차지한 만큼 공격이 기대되지만 ‘수비가 먼저’라는 김선빈이다.

김선빈은 “아직 포스트 시즌 안타가 없는데 타석에는 욕심이 안 난다. 수비가 신경 쓰인다. 수비에서 먼저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